

아나키스트도서관 (Korean)

아연주간뉴스단평 2021-05-09

아나키스트연대

아나키스트연대
아연주간뉴스단평 2021-05-09
2021.05.09

<https://blog.naver.com/anarchistleague/>

kr.theanarchistlibrary.org

2021.05.09

1. [청년을위한나라는없다.]

2021년 4월 22일, 경기도평택항에서한청년이비극적인죽음을맞이하고말았다. 대학 3학년생인이선호씨는판데믹때문에학교를못가던터라생활비를벌기위해하역사(주)동방의하청업체에서작업반장인아버지와함께일용직노동자로일했다. 그는본래컨테이너안검역을주요했었지만그날은대신 FR 컨테이너관련업무에처음투입됐다. 하지만그는안전교육도못받았고안전매뉴얼도실질적으로부재했다. 이런안전관리의소홀은최저입찰제로외주를입찰받는식으로하청업체를선정하다보니안전관리역할을할인력고용을못했기때문이다. 애초에 2인 1조로작업할일을그보다부족한인력에게떠넘겨버린것이다. 즉, 이런산업'재해'는재해라기보다는이윤을핑계로한기업들과이들을움직이는자본주의의'살인'인것이다.

이렇게이윤에눈이먼기업들이안전을일부러내팽개치고노동자들을죽음으로내몬사건들은 2018년발전소안에서도, 2016년구의역에서도, 그리고그보다훨씬이전부터도있어왔다. 하지만정부의규제정책은여태껏무의미해왔으며기업들은자신들의잘못이아니라고발뺠하기바쁘다. 이런와중에도판데믹이후로올해 1분기에신규채용이다시늘었지만주로늘어난임시/일용직임금노동자들은여전히앞서말한산업'재해'에노출되어있다.

우리는, 그들의가족이고친구인우리들은더이상이를용납하여서는안된다. 필자는진지하게이대로면점점더많은청년들이열악한노동환경에내몰려제 2의, 제 3의이선호씨가등장하게되지않을지심히걱정이다. 더이상이런일이일어나지못하도록막아야만한다. 그렇기에필자는주장한다. 좌파니우파니, 아나키즘이니아니니를잠시접어두고모두산업재해에맞서일어서자! 정부도기업도아닌노동자들이직접안전에필요한것들을점검할수있고부족한것이있으면당당히기업에게청구하고요구할수있는노동자자주적인노동환경을요구하자! 더이상노동환경에불합리에의한노동자의피가흐른다면다음에는누구의피가흐를지알려주자!

2.[경찰은세계의누구보다아나키즘을사랑하면서왜본심을숨기는것일까?]

조금, 혼란스러웠다. 제목과같이, 공화국대한민국의경찰은사실그누구보다세상의아나키즘적재편을바라마지않는사람들인것아닐까? 그렇지않고서야” 접근금지명령을어긴남편을발견했음에도아무런조치

를하지않” 으면서” 이견그냥종이일뿐이다”, ”(집행은) 판사가해야할 일”, ” 법원이이렇게종이’ 딱지’ 만보내놓은건무책임한것”, ” 우리는법원하고다르다. 우리한테강제력을요구할수없다”, ” 떼쓰지말고서로한발씩양보하라” 는이야기를망설임없이할수있겠는가?

그렇다. 여태우리가” 경찰” 이라는제도와거기종사하는이들에대해사실크나큰오해를하고있었는지도모른다. 그들은사건을근본적으로사전에해결할능력도의지도없으며, 사후라고하여크게달라지지않는다. 그러니까다시말해그놈의’ 법치주의’ 라는것이제기능을못한다는좋은실례를보여주는것이자법률에의한대중의억압을실행하는’ 척’ 만하는, 뭐라고할까, 그래, 다크나이트같은존재들인것이다. 국가라는거대권력기구가효율적으로독점된폭력을사용하는것을운몸으로일선에서막아서고조롱하는, 대중의자유를위해묵묵히잡새라며육을먹으면서도제할일을하는침묵의수호자, 어둠의기사말이다.

앞으로집회에서경찰들을마주치면전보다는조금상냥하게그들을때려줄수있을것같다. 그전에는그들이다치든말든방패도뺏고하이바도뺏고했다면이제는’ 요요요양증맞은가식쟁이사야아나키스트 ☆’ 하고딱콩한방주먹으로때려주는정도로말이다. 그러면그들도우리에게’ 드디어…! 우리의본심을알아주는이들이나타났구나…!’ 하며감격의눈물을흘리고는, ’ 그래도아직은, 아직은국가가이것을눈치채면안된다’ 며눈물을다시삼키며우리를열심히잡아가려는’ 척’ 을할것임에분명하다. 오이오이, 짹새군…! 믿고있었다구…!

부디대한민국경찰제군이앞으로도국가의강제력에대항해법원의명령서라는것이사실은대중이아무도동의하지않는다면그저종이쪼가리에불과하다는사실을적극홍보하는일어나서주시기를바라마지않는다. 그들의모두의미움을받을용기에다시한번속으로응원과연대를보내며, 현장에서이마음을숨기고서로육으로주고받는촌촌을끝낼날이하루빨리도래하기를다시한번간절히바라본다.

<https://news.join.com/article/24048788>

3. < 이시국에도가격표를붙이려드나 >

백신의개발에도불구하고코로나 19 사태의종식은멀어만보이는가운데백신의지적재산권을면제해야한다는목소리가커지고있다. 제약사인화이자는다당하게도반발하고있는상태다.

화이자측의“지재권보호가없어지면세계각국의 제약사가너도나도 백신생산에뛰어들면서화이자처럼풍부한노하우를갖춘기업들의 원재료공급망에지장이초래될위험이있다”는주장은그저황당할따름이다. 바로그지적재산권을통해약품의생산을규제하고독점하며고액에팔아치워민중을착취하고있는기업이할말이라니. 화이자속한미국제약협회는그들의수출약품가격을높게유지하기위해방해가되는타국의제약산업을대상으로미정부에무역제재를요청해온단체다. 화이자백신공급문제를운운할자격이없다.

모든것을이윤추구의대상으로자삼고자하는자본주의는오늘날에는 지식과정보에마저소유를주장하고있다. 이소위“지적재산권”이라는것의가장큰수혜자는거대자본이요가장큰피해자는민중이다. 우리는오늘날앞서언급한제약회사는물론몬산토의농민착취와같은거대자본의지재권에의한착취를목도하는것은물론이요, 그들이구축한질서속에서독립적인개발자들과창작가들도한그들의의사와상관없이생계를위해지재권체제안으로들어가야하는상황에처해있음을알고있으며, 알약하나, 씨앗하나, 글자하나에까지착취당하는민중의실정을보고있다.

지재권의해악성은비단코로나백신에만국한되는것이아니다. 약만아닌약만드는지식에조차가격표를붙이려드는이또하나의착취제도는다. 그자체로문제이며자본주의체제와함께철폐해야할대상이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

4. [아! 인민재판마렵다!]

5월 10일광주에서예정된전두환의사자명예훼손항소심재판에, 살인마가불출석을통보했다. 법정에서고싶지않으면항소심을제기하지를말던가, 항소심을제기하여국가의보호에스스로의처지를위탁하기로결정하셨으면잡자코법정에서던가들중하나만했으면 좋겠지만, 이대머리학살자는그러한상식조차없는것같다.

이해가지않는것은아니다. 전가놈이 40년전 5월광주에서무슨것을했는지돌이켜보면, 하필이면“5월”에“광주”에가면, 솔직히조리돌림일직선일것이분명하니말이다. 자기가사람수천수백의몸에총탄을박아넣을때는아무감정도없다가도, 정작자기의머리에계란하나가던져지면광분하는것이세상모든권력자들의심성이니말이다. 어찌면“나한테당해보지도않은”놈들이쏟아내는욕을처먹는것이심히억울하실지도모르겠다.

안타까운일이다. 광주시민들이직접전씨를단두대에올리는것이야말로, 금남로에그새끼를묶어놓고조리돌림할수있도록하는것이야말로, 광주라는도시에게행복한일이될수있을텐데말이다. 이렇게이야기를하고있으면, 결국그것이인민재판이아니냐고말하는것을듣게된다. 맞다. 인민재판을하자는이야기다.

그리고그것이무엇이나빠가. 인민들을학살하였던, 인민들의삶을파괴하였던, 인민들의공동체를파괴하였던지상에현현한대머리사탄을인민들이직접, 인민들이합의한규칙에따라처벌하는것이, 그사탄이건설에일조한‘법’이고‘체제’인것보다는낫지않은가.

하지만이렇게말하면서도, 위대한법치공화국, 대한민국에서는, 이러한일을하지않을것을안다. 지난 40년간, 정권이어떻게바뀌건, 정세가어떻게변하건, 전두환에대한국가의‘배려’는변함없이없지않은가. 아니, 세계역사를돌아보아도, 폐주(廢主)를인민의바람대로처분하여준신정권이존재하기는하는가. 정권을잃은뒤의자신들이그렇게되는것이두려워서라도, 그어떠한체제도, 지난지도자를처분하지 못했다.

크로포트킨은“억압의피비린내나는집행인들은절대로기소되지않는다”고말한바있다. 하지만크로포트킨이이글을쓰고도한세기반이지났고, 이제막근대국가비슷한것들이태동하던당시에비하여국가운영의경륜이쌓인그들은더욱세련된방법론을제시하고있다. 그들은“억압의피비린내나는집행인들”을기소하지만, 절대로 (인민들이합당하다고여길만큼) 처벌하지않는다. 그들은이렇게, 인민들을조련한다.

제발, 전가놈이, 사회혁명의그날, 우리가직접그를재판하는순간까지, 오래오래사셨으면 좋겠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